

定齋 柳致明의 『關西遊錄』에 나타난 지역 형상화 양상과 그 의미

남 윤 덕*

< 目 次 >

- | | |
|-------------------------|-----------------------------------|
| I. 머리말 | IV. 『관서유록』의 가치와 의의 -
맺음말을 대신하여 |
| II. 유가적 사고에 근거한 역사인식 표출 | |
| III. 명승고적의 소개와 품평 | |

< 국문 초록 >

柳致明의 『關西遊錄』은 관서지역 내 누정과 명승지를 유람하고 그에 대한 感評을 기록한 일차적인 유록의 성격과 평안도지역에 대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그 정황 관계를 살펴 그에 대한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등의 현실 인식도 반영하고 있다. 『관서유록』은 역사 기술을 통해 그 사료적 가치성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이는 역사와 문학이 결합된 모습으로 사실감 있게 드러난다. 류치명은 묘향산의 유래, 동방에 문명을 전파한 기자, 황성, 송나라 휘종과 흠종, 그리고 오랑캐의 오국성 등 그 옛날 역사적 사실 묘사에서 북방지역의 역사인식과 소중화 의식이라는 조선 유학자의 사상을 가감 없이 문학적으로 형상화하였다. 또한 관서지역의 대표 누정이나 강학공간을 소개하며, 그에 대한 소회와 감정을 진솔하고 담담한 어조로 표현해 내기도 했다. 류치명의 『관서유록』은 단순한 유람에 대한 기술이 아닌 유학자로서 관서지역을 제

* 부산대학교 한문학과 강사 / skadbsejr95@hanmail.net

대로 이해하고, 자기성찰의 시간도 갖는 등 여러 의미와 의도에서 그 문학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겠다.

【주제어】 關西遊錄, 箕子, 五國城, 樓亭, 書院

I. 머리말

본고는 西北地域에 대한 安東 全州柳氏 水谷派 가문의 남다른 관심과 관련 작품들의 연계성을 살피는 과정의 一環으로, 定齋 柳致明(1777~1861)이 저술한 『關西遊錄』의 지역 형상화 양상과 그 의미가 지역적 특수성을 연구하는 데 얼마만큼의 가치와 의의를 지니고 있는지 살피고, 오늘날 북한 지역을 이해하는 한문학 자료로써의 『관서유록』이 가지고 있는 위상을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서북지역은 관서와 관북지역을 통칭하는 말이다. 본고는 지난 연구에서 지역 한문학과 관련 문인들을 발굴하는 문제의식 속에서 현직 관리로서는 드물게 關北地域에 대한 기록물¹⁾을 남긴 안동 전주류씨 집안의 乖厓 柳檣(1626~1701)와 慵窩 柳升鉉(1680~1746)²⁾이 저술한 「北土風俗記異」와 「北道風土大略」을 통하여 관북지역에 대한 기억을 되살린 바 있다.³⁾ 「북도풍토대략」의 저자 류승현은 류치명의 從高祖父가 된다.⁴⁾ 이 같은 안동 전주류씨 가문의 서북지역에 대한 관심은 17~18세기를 거쳐 19세기로 접어들어 당시 嶺南 儒林을 대표했던 류치명이 저술한 『관서유록』으로 이어지게 된다.⁵⁾

1)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수곡파의 기록정신, 관북견문록」, 『안동무실마을 문헌의 향기로 남다』, 예문서원, 2008, pp.239-240.

2) 류지와 류승현은 관북지역에서 각각 吉州牧使와 鐘城府使를 지낸바 있다.

3) 남윤덕, 「17~18세기 安東 全州柳氏 官人의 작품 속에 나타난 關北地域 형상화와 그 의미」, 『人文研究』 70,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4, p.369.

4) 류영수, 「正齋 柳致明 研究(1)」, 『東方漢文學』 44, 동방한문학회, 2010, p.176 참조.

5)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앞의 책, 2008, pp.215-216.

현재까지 관서지역과 관련된 논문 및 기타 서적들은 대체적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활동 전반에 걸쳐 비교적 다양하게 이루어진 편이다.6) 그 가운데서도 오수창, 권내현, 장유승, 강석화 등에 의해 비교적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 북방지역에 대한 연구의 대부분은 사료적 관점에서의 역

- 6) 평안도 관련 논문으로는 고석규, 「18세기말 19세기초 평안도지역 鄕權의 추이」, 『한국문화』 11,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0.; 오수창, 「18세기 영조·정조의 평안도에 대한 정책」, 『역사와 현실』 17, 한국역사연구회, 1995.; 吳洙彰, 「17, 18세기 平安道 儒生層의 정치적 성격」, 『한국문화』 16,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5.; 오수창, 「조선후기 평안도 지역차별의 극복 방향」, 『역사비평』 33, 역사문제연구소, 1996.; 오수창, 「朝鮮後期 平安道民에 대한 人事政策과 道民의 政治的 動向」,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吳洙彰, 「18세기 평안도 武士層의 중앙 진출과 그 한계」, 『역사문화연구』 12, 한국의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00.; 정영준, 「平安道 農民戰爭의 參與層 研究」,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金明淑, 「『西繡日記』를 통해 본 19세기 평안도 지방의 사회상」, 『동아시아 문화연구』 35, 漢陽大學校 韓國學研究所, 2001.; 鄭寅植, 「17-18세기 평안도 良役制의 변천」, 『韓國文化』 27,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2001.; 권내현, 「朝鮮後期 平安道 財政運營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권내현, 「17세기 후반~18세기 전반 平安道の 對靑吏行 지원」, 『朝鮮新時代史學報』 25, 조선시대사학회, 2003.; 권내현, 「18세기 후반-19세기 전반 平安道の 對靑吏行 지원과 貿易收稅」, 『사총』 56, 역사학연구회, 2003.; 노영구, 「조선후기 평안도지역 內地 거점방어체계」, 『韓國文化』 34,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2004.; 강석화, 「조선후기 평안도지역 압록강변의 방어체계」, 『韓國文化』 34,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2004.; 吳洙彰, 「19세기 초 평안도 사회문제에 대한 지방 민과 중앙관리의 인식과 정책」, 『韓國文化』 36,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5.; 張裕昇, 「조선 후기 서북 지역 문인 집단의 성격·평안도와 함경도의 지역 정체성 차이를 중심으로」, 『진단학보』 101, 진단학회, 2006.; 최진옥, 「조선시대 평안도의 생인 진사사 합격자 실태」, 『朝鮮新時代史學報』 36, 朝鮮新時代史學會, 2006.; 권내현, 「번암 체제공의 평안도 인식」, 『한국인물사연구』 5, 한국인물사연구소, 2006.; 오수창, 「조선시대 평안도 출신 文臣에 대한 차별과 通靑」, 『한국문화연구』 15,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08.; 林晶愛, 「朝鮮 後期 關西 名勝圖 연구」, 『美術史學研究』 258, 韓國美術史學會, 2008.; 張裕昇, 「조선 후기 변경 지역 인식의 변모양상」, 『한문학보』 20, 우리한문학회, 2009.; 張裕昇, 「朝鮮後期 西北地域 文人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張裕昇, 「서북 지역 한문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고전연구』 24, 한국고전연구학회, 2011.; 심경호, 「관서·관북 지역의 인문지리학적 의의와 문학」, 『韓國古典研究』 24, 한국고전연구학회, 2011.; 최재남, 「관서·관북 지역의 시가 향유 양상」, 『韓國古典研究』 24, 한국고전연구학회, 2011.; 탁원정, 「고소설 속 관서·관북 지역의 형상화와 그 의미」, 『한국고전연구』 24, 한국고전연구학회, 2011.; 송혜진, 「조선후기 관서지방의 공연 시공간과 향유에 관한 연구」, 『공연문화연구』 22, 한국공연문화학회, 2011.; 林成洙, 「18세기 평안도 鎭堡제정의 구조와 운영 - 『關西戶數總冊代癸丑改釐正節目』을 중심으로 -」,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河明竣, 「18世紀 前半 平安道 儒生의 地域認識과 關西辨經疏 事件」, 『한국사연구』 167, 한국사연구회, 2014. 등이 있다.

사 관련 연구와 유배문인들의 문학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반면 관서지역의 관료문인이면서 가문 대대로 북방지역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문인들과 그들이 남긴 한문학 작품의 의미를 찾는 연구는 현시점에선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본고는 이 같은 점에 문제의식을 갖고, 당시 서북지역을 다스렸던 현직 관원으로 북방지역에 대한 기록물⁷⁾을 남긴 안동 전주류씨 집안의 북방의식과 그 한문학 관련 작품의 연구를 통해 북한지역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의 폭을 넓히는 시도를 하려 한다.

류치명의 『관서유록』은 아직까지 그 선행연구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텍스트이다. 『관서유록』은 류치명이 平安北道 楚山의 都護府使⁸⁾ 재임시절 당시 관서를 유람하고 겪은 일들을 단락별로 기술하고 있어 관서지역에 대한 유용한 정보와 평가를 통한 한문학적 작품성을 갖춘 기록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인 유록의 형식과는 달리 단순한 유람의 기술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백성을 다스리는 현직 관리로서의 백성들의 삶에 대한 현실인식이 작품 속 곳곳에 녹아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관서유록』에 보이는 명승지 유람과 현실인식의 지역성을 바탕으로 관료문인이 바라본 관서지역의 형상화가 북녘 땅의 옛 특징들을 되살려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북방지역의 미래를 되짚어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지 살피는 것으로 본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Ⅱ. 유가적 사고에 근거한 역사의식 표출

류치명의 『관서유록』에 보이는 관서는 일반적으로 平安 南北道를 통칭하며, 摩天嶺 서쪽 지역을 가리킨다.⁹⁾ 관서는 관북지역과 마찬가지로 역사나 정치, 문화적으로 대체로 당시 지역의 실상과 부합되는 형상을 드러낸다.¹⁰⁾

7)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앞의 책, 2008, pp.239-240.

8) 『承政院日記』, 「憲宗 5年 12月 22日(甲申)[1839년 道光(淸宣宗) 19년]」, “柳致明爲楚山府使”

9) 최재남, 앞의 논문, 2011, p.50.

선생은 健陵[正祖의 陵] 1年 丁酉[1777년] 10월 13일 巳時[오전 9시~11시]에 安東府(一直縣) 蘇湖里 외갓집에서 태어났다. 선생은 어머니 뱃속에 13달이나 있었다. 외증조부 大山 李先生[李象靖(1711~1781)]이 선생의 증조부 侍正公[柳通源(1715~1778)]에게 편지를 쓰길 “뱃속에 어떤 기이한 사내아가 들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이미 태어나자, 또 하례하기를 “골상이 비범합니다.”라고 하며, 인하여 이름을 지어주었다. …… 선생의 이름은 致明, 字는 誠伯, 姓은 柳氏, 全州사람이며, 高麗朝 完山伯 휘 濕이 그의 始祖이다.¹¹⁾

『관서유록』의 저자 류치명은 字가 성백, 호는 定齋이며, 본관은 全州이다. 류치명은 어릴 적부터 타고난 비범함으로 小退溪라 불리던 외증조부 대신 이상정에게 기대와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며 성장하였다. 이후 사환의 길을 걸으며 1839년 12월 당시 63세의 나이에 平安北道에 있는 압록강 국경지역인 楚山의 都護府使로 제수되어,¹²⁾ 1842년 2월 66세 때까지 관서지역을 治定하게 된다.¹³⁾

류치명은 초산지역 백성들이 生祠堂을 지어 그의 재임시절 선정을 기릴 정도로 뛰어난 정치적 역량을 발휘한다.¹⁴⁾ 그는 초산도호부사 재임시절 당시 저술활동에도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學記章句』는 그가 공무 외에 戴氏의 禮를 읽다가 옛 성인의 敎人節目이 여기에 갖춰져 『대학』과 함께 서로 표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지은 것이기도 하다.¹⁵⁾

류치명의 『관서유록』은 이렇게 초산도호부사로 수년간의 공무와 학문을 병행 하던 중 여가를 틈타 妙香山을 유람한 당시의 견문을 글로 남기며

10) 탁원정, 앞의 논문, 2011, p.148.

11) 柳致明, 『定齋先生文集附錄』 卷5, 「家狀(門人柳致游 謹狀)」. “先生以健陵元年丁酉十月十三日巳時, 生于安東蘇湖之外氏第. 先生在娠三月. 外曾王考大山先生, 書于寺正公曰, ‘未知腹中有何許奇男子.’ 既生, 又賀‘骨相之異凡’, 因爲之錫名. …… 先生諱致明, 字誠伯, 姓柳氏, 全州人, 麗朝完山伯諱濕, 其始祖也.”

12) 柳致明, 『定齋先生文集附錄』 卷3, 「行狀(金興洛 謹狀)」, “己亥四月, 又除承旨, 十二月, 除楚山府使.”

13) 柳致明, 『定齋先生文集附錄』 卷1, 「年譜」, “八年壬寅, 正月, 赴召還朝. 二月, 歸鄉.”

14) 柳致明, 『定齋先生文集附錄』 卷1, 「年譜」, “先生既歸, 楚山府民, 設畫像立生祠以祀之. 沿江七邑儒士, 屢呈營紵織衣, 請啓聞, 有人膽來牒及設詞文字. 先生曰, ‘儒生事甚可笑.’ 遂屢次專人撤來.”

15) 金興洛, 『西山先生文集』 卷22, 「行狀」, “定齋柳先生行狀, “在楚州, 嘗讀戴氏禮, 以爲學記一篇. 備載古聖人敎人節目, 可與大學相爲表裏, 作學記章句.”

탄생하게 된다.¹⁶⁾ 류치명의 『관서유록』은 관서지역의 지리적 사실묘사에 충실한 느낌을 준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사실묘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작자 자신이 공감하고 느낀 점에 대한 품평을 평소 가지고 있던 儒家的 思考와 연결 지어 곁들인다.

묘향산은 또한 태백산으로도 불리며, 여러 고을에 걸쳐 자리하고 있지만 그다지 뛰어난 명승지는 없었다. 寧邊이라는 곳은 이름이 잘 알려진 산 안에 있는데, 오직 상원암만이 제일 높이 깎아지른 듯 한 골짜기에 위치해 그윽한 경치를 감상할 만 하였다. 다만 뒤로 가로막은 돌벽풍이 하늘에 닿을 듯 높이 솟아 있어 뒤 언덕을 가로 막았고, 섬돌 앞 치마바위는 가파른 것이 앉은 자리가 눌린 채 모두 가려지고 보이지 않았다. 치마 바위는 높이가 4.50척이고, 넓이가 1候(候) 정도 될 만하였고, 마치 치마를 드리운 듯했기에 이름 붙여진 듯했다. …… 대저 산이라 함은 웅장하되 험하고 외지지 않아야 하며, 중후하되 완약하고 노둔하지 않아야 하니, 묘향산의 지령이처럼 꿈틀거리는 상서로운 기운은 마치 맑은 공기를 뿜을 수 있는 것이 덕이 있는 사람과 같았다. 태백산은 단군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곳이며, 동방 사람들의 문명이 처음으로 열린 것은 실로 여기에서 기만 한다. …… 보았던 지역 가운데 이름 있는 산으로 기이한 경치와 빼어난 명승을 들어 본 자는 묘향산을 ‘丈人の 향렬’이라 할 만할 것이다.¹⁷⁾

위 글은 『관서유록』의 도입부이다. 평안도의 대표 명산인 묘향산에 도착한 류치명은 산의 전체적인 특징과 찾아간 내부 곳곳의 상세한 설명과 느낀 점 등의 묘사를 곁들이는 섬세함을 보인다.

평안북도 영변 남쪽에 있는 묘향산은 단군이 誕降한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묘향산은 아미산이라고도 부른다. 또 향산이라고 하는 것은 향나무

16) 柳榮洙, 「定齋 柳致明 經學 研究」,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pp.18-19 참조.

17) 柳致明, 『定齋先生文集續集』卷8, 雜著, 「關西遊錄」, “妙香山亦名太白, 盤據數郡, 而無奇致異勝在寧邊者, 有名山內, 惟上院庵最據高臨絕壑, 幽致可賞. 但後障石屏參天, 而爲後阜所遮, 階前裳巖陡斷, 而爲坐地所壓, 皆隱而不見. 裳巖者, 高四五十丈, 廣可一侯場, 若垂裳然故名. ……大抵爲山, 雄偉而不險僻, 厚重而不頑鈍, 蜿蜒扶輿, 若有淑氣可視, 類有德者. 山爲檀君降生之地, 東方人文肇闢, 實基於此. ……視域中名山以奇致異勝開者, 可爲丈人行矣.”

와 감탕나무[冬靑]가 많아 향기롭기 때문이라고 한다.¹⁸⁾ 『평안도 읍지』에 따르면 묘향산을 태백산으로 기록하고 있다.¹⁹⁾

묘향산에 대한 류치명의 첫 느낌은 뛰어난 명산이 아닌 그저 그런 평범한 느낌을 갖게 하는 산이었다. 류치명이 주장한 명산의 기준에 따르면 산은 웅장하되 험하고 외지않아야 하며, 중후하되 완악하고 노둔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묘향산의 산세는 지리산보다 웅장하지 못하고, 금강산보다 빼어나지 못한 것이 보통의 평가이긴 하다. 그러나 묘향산의 첫 느낌을 뒤로 한채 들어선 묘향산은 류치명에게 또 다른 매력을 갖게 한다. 상원암을 지나 치마바위로 옮겨가는 동안 묘향산에 대한 그의 생각은 변모하며 뛰어난 명승으로 묘향산을 그려나간다. 명산의 요소로 꼽는 웅장하고 중후함이 다가아니라 상서로운 기운을 뿜어 맑은 정기가 가득한 묘향산 또한 명산의 요소를 갖추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결국 류치명은 묘향산이 동방의 문명을 열여젖힌 곳이라는 점과 단군이 탄강했다는 전설이 있을 만큼 우리나라의 정기가 모여 있기에, 단순히 형승의 관점에서 다른 산과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²⁰⁾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고, '丈人行'²¹⁾이란 표현은 그 사실을 뒷받침한다. '장인항'이란 바로 尊長者를 일컫는 말로 류치명이 그 만큼 다른 산들에서 비해 동방의 유구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묘향산 즉 태백산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어느덧 행선지는 영변을 지나 江界를 향하고 있었다.

고산진을 경유하여 언덕으로 난 길을 따라 오르면 이따금 강물이 스민다. 30리를 가면 벌등진이 나오니 또한 강계지역이다. …… 고산진으로 부터 만포진에 이

18) 심경호, 앞의 논문, 2011, pp.19-25 참조.

19) 韓國學文獻研究所, 『寧邊志』, 『韓國地理志叢書 邑誌(平安道篇)』, 亞細亞文化社, 1986, p.93, “妙香山. 一云, ‘太白山.’ 在府東一百里, 中有三百六十菴. 李穡記, ‘妙香山在鴨綠水南岸, 平壤府之並與遼陽爲界山之大. 莫之與比, 而長白之所分也. 地多香木, 仙佛舊蹟存, 爲山以之名.”

20) 심경호, 앞의 논문, 2011, p.25.

21) 吳之振, 『宋詩鈔』卷46, 「劍州道中見桃李盛開而梅花猶有存者, “桃花能紅李能白, 春深何處無顏色. 不應尚有數枝梅, 可是東君苦畱客. 向來開處當嚴冬, 桃李未曾在交遊中. 即今已是丈人行, 肯與年少爭春風.”

르기까지 탁 트인 60리를 바라보면 황금 물결의 잔디로 된 큰 들판이 펼쳐지고, 앞에는 성터가 있는데 둘레가 수십 리나 되니, '皇城'이라 일컫는다. 물 위에 푸른 수풀 사이로 무덤 하나를 가리키는 데 '皇墓'라 일컬었다. '황성'은 금나라 오랑개의 '五國城'이고, '황묘'는 송나라 황제의 무덤이 된다. 지금 함경도 회녕 땅에 또한 '徽欽塚'이라 일컬어지는 무덤이 있는데, 대체로 서북 양쪽 경계가 모두 청나라 오랑개의 땅이었다. '황성'은 아마 금나라일 것이고, '황묘'는 또 두 황제[宋나라 徽宗 欽宗]를 각각 한곳에 합장한 것일 것이다. 당시의 흥망은 모두 폐허가 되고 지난날의 과거가 되니, 사람으로 하여금 비분강개한 마음을 불러일으킨다.²²⁾

江界는 평안북도 강계군에 있는 면이다. 명승지로서 관서팔경의 하나인 仁風樓를 비롯하여 望美亭, 北川樓 등이 소재해 있다.²³⁾ 류치명은 강계지역에 속한 고산진, 별등진, 만포진을 각각 경유하면서 그 곳 승경들을 두루 관람한다. 주작이 춤추는 듯 한 높은 봉우리, 봉우리 꼭대기에 위치한 빼어난 누각, 황금물결의 넓은 들판 등은 그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그리고 그곳에서 본 '황성'이라 불리는 옛 성터, 지난 송나라 황제 무덤인 황묘 등을 통해 탄식을 불러일으킬 만큼 한 나라의 흥망성쇠에 대한 감흥에 젖어들기도 한다. 류치명은 황성, 즉 금나라 오랑개 땅이 된 五國城과 그곳에서 역울하게 유명을 달리한 송나라 두 황제인 휘종·흠종의 묘소인 황묘의 사실고증에도 관심을 갖는다.

인용문에서 언급한 '오국성'은 遼東땅 三萬衛의 북쪽 1천 리에 있는데, 여기서부터 동쪽을 나누어 5國으로 삼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오국성은 금나라 오랑개가 휘종과 흠종을 사로잡은 뒤 韓州의 鶻里改路를 거쳐 南宋 高宗 建炎 4년(1130)에 마지막으로 송치시킨 곳이다.²⁴⁾

22) 柳致明, 『定齋先生文集續集』 卷8, 雜著, 「關西遊錄」, “由高山鎮 緣崖鑿徑, 往往江水浸之. 行三十里, 有伐登鎮, 亦江界地也. …… 自高山至滿浦, 通望六十里, 黃莎巨野, 前有城址, 周迴數十里, 稱皇城. 水上莽蒼間, 指一塚, 稱皇墓. 城即金人五國城, 而墓爲宋帝墓. 今咸鏡道會寧地, 亦有稱徽欽塚者, 槩是西北兩界, 皆胡地也. 城之爲金或然, 墓又二帝各藏一處耶. 當時興亡, 皆丘墟而過劫前塵, 猶令人慨然.”

23) 박래겸 저/조남권·박동욱 역, 『西繡日記 126일간의 평안도 암행어사 기록』, 푸른역사, 2013, p.149 각주 107) 참조.

24) 彭大翼, 『山堂肆考』 卷29, 地理, 「五國」, “五國城在遼東三萬衛北一千里, 自此而東分爲五國,

그러나 실제 류치명이 언급한 '황성'과 '황묘'는 단지 '황성', '황묘'라는 명칭과 전언에 의한 분석으로 보이며,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 조선 지식인들은 자신의 선협적 지식을 바탕으로 역사적 현장에 대한 분석과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간혹 전혀 무관한 장소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보이고, 심지어는 새로운 의미로 장소를 재창조하기도 한다. 인용문에서 보여지듯 류치명 또한 이러한 선지식을 바탕으로 '황묘'를 송나라 휘종과 흠종의 무덤으로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인용문에서처럼 '황성'을 '오국성'으로 파악하고, 함경도 회령 일대로 보는 경우는 다른 기록에도 비슷한 언급이 있긴 하지만, 실제 역사적 사실과는 다르다.

이러한 류치명의 생각은 유가적 사고에 근거한 역사의식의 표출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것으로 평가 할 수 있겠다. 당시 류치명은 중원을 칭나라 오랑개에게 짓밟힌 채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져간 중국 정통 왕조에 대한 회한과 어쩔 수 없이 오랑개와 굴욕적인 사대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 조선의 현실을 통해 오랑개에 의해 허무하게 짓밟힌 중국왕조를 비분강개한 마음과 원망 섞인 어조로 한탄한다. 이는 승경의 지리적 사실고증보다는 儒家的 小中華 主義에 입각한 역사의식의 발로로 그 사상적 측면을 통해 이해해야 할 것이다.

Ⅲ. 명승고적의 소개와 품평

1. 교유와 풍류의 공간 樓亭

류치명의 『관서유록』에는 같은 지역 간은 물론이고, 중앙과 지방의 교유와 풍류의 공간이 되었던 누정에 대한 내용들이 보인다. 류치명은 자신의 글에서 비교적 많은 비중을 할애하여 관서지역 대표 누정들의 위치와

故名. 去金上京東北一千里. 又名鵲里改路. 宋建炎中, 金徒徽欽二帝于五國城, 即此."

특징 등을 섬세하게 기술하고 누정을 직접 오르내리며 느꼈던 바들을 가감 없는 필체로 담아낸다. 누정에 대한 내용을 서술한 후에는 관련 누정들을 비교하며, 자신의 생각을 결론 삼아 평가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는 류치명 자신의 사상이나 가치관을 돌아보는 자아성찰의 시간이 되기도 하였다.

① 영파루는 강계부 고산진 수자리 堡壘 우측 낮은 언덕에 있으며, 고산진은 강변에 있다. 여러 진들은 조금 한가로울 때면 넓게 평탄하고 기름진 땅이 차지하고, 압록강이 들이치면 강물이 피어오른다. 위 아래로 수십 리를 바라봄에 강의 북쪽은 청나라 오랑캐의 땅이다. 장평은 넓게 잔디가 우거져 있으며, 또 그 북쪽은 산이다. 수목이 울창하지만, 모두 쓸모없는 지역이며, 수자리의 요긴한 곳에 침사를 두었다. 국경을 지키는 자가 말하길 “봄여름에 청나라 오랑캐가 뗏목에 올라 강을 타고 내려와서, 우리 백성들이 이 때문에 공포탄을 쏘아 쫓아내면 바로 올려다보고 매우 두려워하며 엎드립니다. 이윽고 추방당하면, 하하 웃으면서 일어나 히죽거립니다. 사슴과 산돼지를 사냥하다가 그들 중에 강으로 뛰어 들어가게 되면, 피차 다투어 쫓아 사슴과 산돼지를 얻으려 하지만, 서로 강을 건너진 않는다.”고 하였다.²⁵⁾

② 인풍루는 강계부가 다스리는 남쪽 언덕에 있다. 강계부는 하나의 큰 언덕으로 되어있다. 남쪽을 향하여 열린 형국이며, 높되 평평하고 기름지고, 앞 오른쪽의 두 냇물[北川南川]은 모두 배가 노를 저어 통과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었다. 두 냇물은 합류하여 禿魯江이 된다. 마주보는 언덕은 인풍루의 터이다. 모퉁이는 벽을 깎아 놓은 것이 곱차처럼 되어 있으며, 높이는 10여장이다. 위태로운 난간은 양 언덕에 나타나며, 三江을 띠처럼 두르고, 갯벌 한 면을 끼고 있다. 마을 누대에 기대면 연기를 피우며 밥 짓는 집의 번화함이 보이니, 큰 규모의 광경을 앉은 자리에서 제공 받는다. 사람들은 연광정과 비슷하다고 하지만, 물은 검푸르고 돌은 검은 것이 산 또한 거칠고 완악하여 연광정과 비교해보면 30리보다 더 떨어져 있다.²⁶⁾

25) 柳致明, 『定齋先生文集續集』卷8, 雜著, 「關西遊錄」, “曠波樓 在江界府高山鎮戍壘右畔 高山鎮在江邊 諸鎮稍闊 曠占地平行 逼鴨江 江水演漾 上下望數十里 江之北胡地也 長坪廣莎蕪沒又其北山也 樹木鬱鬱 皆廢地 戍置僉使以領之 戍者 言‘春夏胡人乘木筏 浮江而下 我人故放虛銃 正擬問仰視 怖甚而仆 既放 呵呵而起以爲戲 行獵鹿豕 爲彼所中而投入于江 彼此競逐得之 不相諭江云.”

- ③ 백상루는 안주의 북문 왼쪽 언덕에 자리하고 있다. 매우 큰 기둥과 대들보로 제작되었고, 수십 칸이나 되는 넓고 큰 누대에 벽과 창문을 다 바라볼 수 없을 정도였다. 동쪽엔 작은 屋과 軒이 위치해 있는데, 바람을 피하고 산맥을 쫓아 온 곳이지만 먼 곳까지 볼 수는 없었다. 안주는 관서절도영이 되는데, 성가퀴의 문루에서 보이는 광경에서 마을의 백성과 물건의 성대함도 모두 백상루의 앉은 자리에서 볼 수 있었다. 북쪽 영변으로부터 서쪽 변방 끝까지 드넓게 모두 산록이 둘러쳐 있으며, 중간에는 큰 평야가 펼쳐져 있다. 그 가운데를 가르듯 흐르는 강은 청천강이다. 눈 아래 수백리를 내려다보면 평평한 백사장은 드넓고, 푸른 물결이 넘실넘실 거린다. 굽어보면 배가 노 젓기를 힘들어하고, 사람과 말이 뒷걸음질 치니, 마치 개미가 느릿느릿 나아가는 모습과 같았다. 누대의 밑에 버드나무 수백 그루가 있는데 나무 끝에 푸른색을 펼쳐놓은 것이 마치 작은 풀이 평평하게 우거진 듯하다. 누대가 있는 곳이 그리 높지는 않으나, 크고 높은 것이 탁 트이고 시원하여 거의 연광정 보다 낫거나 조금 모자라기도 했지만, 식상한 모습은 없을 따름이었다.²⁷⁾

①은 영파루에 대한 내용이다. 류치명이 제일 먼저 오른 곳은 강계부 고산진에 위치한 영파루였다. 류치명은 영파루의 수려한 경관 속에 썩 내키지 않은 곳을 발견한다. 바로 강의 북쪽 건너편에 바라보이는 청나라 오랑개 땅이다. 누대가 위치한 곳이 국경과 인접한 지역이다 보니, 청나라 오랑개와 강을 사이에 두고 사건사고가 빈번하다. 국경지역으로 사용할 수 없는 땅이나, 수렵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조선과 청나라 오랑개 간의 犯越 문제까지 류치명에겐 영파루의 정취를 마냥 감상하기에 목민관으로

26) 柳致明, 『定齋先生文集續集』卷8, 雜著, 「關西遊錄」, “仁風樓, 在江界府治之南岸. 府爲一大阜. 向南開局, 高而夷行, 前右兩水, 皆非舟楫, 不可通. 合流爲禿魯江. 交際之岸, 樓所基也. 隅爲削壁如矩, 高十餘丈. 危欄出兩岸, 襟帶三江, 控引浦濼一面. 邑居樓觀烟戶之盛, 宏侈以供几席. 人謂逼似練光, 而水黝石黑, 山又巖頽, 較之不啻退舍三十里也.”

27) 柳致明, 『定齋先生文集續集』卷8, 雜著, 「關西遊錄」, “百祥樓, 在安州北門左阜. 極棟宇之制, 廣廈數十間, 不壁不廳, 以盡眺望. 惟東置小屋小軒, 以避風, 爲山脈所從來, 無遠眺也. 州爲節度營, 城巖樓觀之壯, 閭閻民物之盛, 皆在几席. 北自寧邊, 西極定博, 皆山麓縈紆, 中開巨野, 劃流其中者, 晴川江也. 數百里眼下, 平沙浩浩, 碧波漾漾. 俯觀舟楫亂載, 人馬辟易, 若蟻行然. 樓底柳林數百頃, 樹梢敷青, 若小草不蕪. 樓處地不甚高, 而宏敞爽豁, 殆過練光少遜者, 無許多意態耳.”

서의 시급한 현실 인식이 무엇보다 우선인 듯하다. ②는 인풍루이다. 류치명은 인풍루를 오른다. 인풍루는 강계읍성 일곽에 있으며, 『동국여지승람』의 기록에 의하면 강계부 성안 서쪽에 있다고 한다. 인풍루는 당시 中樞府 尹末孫이 강계부사로 부임한 후 압록강 연안의 방어를 위해 병사를 양성하며, 군사들의 교련과 사열을 목적으로 1472년에 건립된 것이 1차적인 이유였으며, 아울러 강변의 수려한 경관과 함께 풍류를 즐기기 위한 공간이기도 하였다.²⁸⁾ 류치명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인풍루의 위치, 주변의 검푸른 물빛, 검은색을 띠는 주위의 돌들, 그리고 거칠고 완악한 주변 산세가 화려한 연광정과는 또 다른 승경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계속해서 ③은 백상루에 대한 감평이다. 류치명은 백상루에도 올라 그 곳 전경을 자세히 묘사한다.

평안남도 安州郡 安州邑²⁹⁾에 위치해 있는 백상루는 고려시대의 누정으로 청천강 기슭에 높이 솟은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 옛 안주성 將臺터에 세워 청천강의 자연 경치와 잘 어울리는 건물로서 關西八景³⁰⁾ 가운데서도 첫째로 꼽혀 '關西第一樓'라고까지 한다.³¹⁾

류치명이 처음 접한 백상루의 느낌은 소박한 형태의 누각이 아닌 관에서 운영하는 큰 규모의 樓臺였음을 알 수 있다. 백상루는 일찍이 진주의 矗石樓와 더불어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누각으로 손꼽히는데, '100가지의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누각'이라는 명칭이 시사 하 듯 일찍부터 그 당당한 위용을 뽐내고 있었다.³²⁾ 류치명은 관서 제일의 누정인 연광정과 비교해도 백상루가 절대 뒤지지 않는다고 평가하였다.

28) 김민주, 「조선시대 관아 누각의 건축 특성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p.44.

29) 安州는 의주에서 평양을 거쳐 수도 한양으로 가는 요충지로서, 삼중의 성곽이 만들어져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박래겸 저/조남권·박동욱 역, 앞의 책, 2013, p.76 각주 70] 참조.]

30) 관서팔경은 강계 仁風樓, 義州 統軍亭, 선천 東林瀑, 安州 百祥樓, 平壤 練光亭, 成川 降仙樓, 만포 洗劍亭, 寧邊 藥山東臺이다.[심경호, 앞의 논문, 2011, p.18.]

31) 박래겸 저/조남권·박동욱 역, 앞의 책, 2013, p.81.

32) 권정은, 「<百祥樓別曲>의 누정문학적 정체성」, 『語文學』 93, 한국어문화회, 2006, pp.163-164 참조.

- ① 연광정은 평양의 동쪽 성 대동문의 왼쪽에 자리 잡고 있으며, 성가퀴 높은 곳에 자리하여 정자를 세웠으니, 형세가 마치 허공에 멩에를 씌운 듯하였다. 어지러이 연광정 아래에 유입되는 것은 대동강이었다. 대지를 적시며 흐르는데, 한 없이 넓고 푸른 물결이었다. 강 밖 들판은 간극이 없을 만큼 넓었으며, 밑에서부터 둘러친 여러 산맥들은 아득히 이어져 구슬을 꿰듯 끊이질 않았는데, 벽을 치듯 겹겹이 쌓인 것이 수 백리에 이를 정도였다. 이른바 “긴 성 한쪽은 굽이굽이 물이요, 큰 들 동쪽 끝은 점점이 산이로다.”였다. 붉게 칠한 난간 단청한 마룻대는 시원스럽고 굉장히 아름다웠으며, 그 격식을 다하였다. 화려한 편액에 뛰어난 시구들은 사치스레 꾸미고 질게 단장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눈을 놀래 키고 보는 이들을 고무시켰다. 웅대할 겨를도 없이 어느덧 뛰어난 풍경이 펼쳐진다. 살림집들은 웅기중기 모여 있고, 줄기줄기 연이어진 모습을 한번 바라봄에 이따금씩 날 듯 한 용마루가 걸출하고, 휘황찬란하게 진홍색으로 단청한 곳은 營府이고, 客館이며, 門樓였으니, 여러 차지한 승경들이 특별한 볼거리였다. 웅장함과 사치함은 경쟁하듯 다투었으며, 휘황찬란하게 비춤은 석회로 바른 성가퀴를 둘러고, 웅장함은 서로 이어져 사람들이 물밀 듯 밀려들어 붐비고, 화려한 복색으로 단장하니, 선명한 의상이 불만하였다. …… 물결이 맑아지고 아지랑이가 걸히니, 뛰어난 경치가 같은 의취를 자아낸다. 안개구름 가득 끼는 사이에 질고 열으며 질편해 지면서, 나루터 큰 배 돛대에 바람이 불자, 나오고 들음이 있다가 없다가 하니, 아득히 그 그칠 바를 알지 못하겠다. 장사꾼의 아름다운 노래 소리는 화려한 대자리에 병을 그려 넣은 듯하고, 청아한 노래 가락과 미묘한 춤사위가 위 아래로 어지러이 뒤섞인 것은 화려한 듯하였다. …… 나는 정자라 함은 밝고 고우며 앞이 탁 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 변화하고 농염함이 지나치게 빼어나면 특별히 그러한 정자에 거처하는 것을 싫어한다. 게다가 한가하고 소산한 정취 또한 일찍이 조금도 없으니, 살펴보는 사람들의 어짐과 지혜가 같지 않을 따름이다.³³⁾

33) 柳致明, 『定齋先生文集續集』 卷8, 雜著, 「關西遊錄」, “練光亭, 據平壤東城大同門之左, 占高壓堞而爲之, 勢若駕虛. 渾渾而流入其下者, 大同江也. 涵濶地軸, 一碧萬頃. 江外野廣無際, 羣巒低繞, 渺綿不斷若聯珠. 壘壁巖巖, 可數百里. 所謂 ‘長城一面浴浴水, 大野東頭巖巖山’ 者也. 朱欄畫棟, 爽朗宏麗, 盡其體裁. 華扁傑句, 侈飾農粧, 使人駭瞻鸞觀, 應接不暇. 一半殊勝. 閭閻撲地, 一望連瓦. 往往飛甍傑出, 丹雘流輝者, 營府也, 客館也, 門樓也, 諸占勝別觀也. 爭雄競侈, 照徹歡煌, 繞以粉堊, 羅綺雄偉, 人潮雜沓, 麗服靚裝, 楚楚可觀. …… 至若波澄嵐晴, 異景

- ② 부벽루는 연광정에서 곧바로 북쪽으로 수리쭈에 위치해 있다. 경유하여 들어가 곳은 대동문으로부터였다. 높은 절벽아래를 지나는데, 절벽은 고꾸라지는 듯 했고, 강물은 성난 듯 용솨솨 쳤다. 뚫린 길은 큰 길이 아니어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었다. 이윽고 웅한 골짜기 하나가 작은 구역을 이루었고, 조금 가다가 이른 곳이 영명사였다. 절 뒤 층대 위 누대가 있는데, 또한 나지막이 쌓은 담을 누르고 있었다. 머리 숙여 깊은 연못을 보면 절벽으로 인하여 높게 여겨졌고, 강물로 인하여 명승이 되었다. 실로 큰 성 밖에는 겹겹이 성들로 큰 성을 감싸게 하고 있었다. (영명사의) 승도들은 녹봉으로 생활하였는데, 전투복을 입고 성을 수비하는 것을 도왔다. 강 밖에 들의 경치는 산기슭에 반쯤 막혀있고, 강을 끼고 아득하다. 강에서 곧바로 해가 비치는 누대의 왼쪽 절벽에서 띠를 두른 것이 안팎으로 두 개의 강이 된다. 가운데 능라도가 있는데, 둘레가 4.5리 정도이며, 평탄하고 비옥하였다. 이따금씩 아래로 가라앉기도 했지만, 거주하는 백성들이 있었던 것은 이 때문이었다. 바깥 강은 멀리까지 맑고 잔잔한 물결이 보이고, 안쪽 강은 깊이 고여 있는 물이 보인다. 3면은 험한 산이며, 가파른 절벽과 촛대 같은 봉우리는 그 좌우를 돕고 있다. 위로는 성가퀴가 늘어서 있었는데, 삼가 오를 순 없었다. 증거는 병졸 둘을 데리고 뛰어 올라가 모란봉을 등반하였는데, 나는 참으로 오를 수 없었다. 물 가까이로 걸상을 옮기고 앉아서 햇빛이 옮겨가는 것을 보았는데, 마음속으로 모든 것을 다 갖춘 듯 하여 의당 조용하고 상쾌한 나머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도 성과 시가지가 소재했는지 알지 못하였다. 다만 연광정의 옥각을 아득히 바라볼 뿐이었다. 부벽루에서는 변화함을 볼 수 없고, 고각 소리도 들을 수 없으며, 시끄러움을 떠나 한가롭고, 고상하기까지 하다. 한적하고 그윽한 가운데 또한 절로 탁 트인 난간이 웅혼하여 유인. 일사 같은 이들이 홀로 그윽한 정절을 보전하고 스스로 우주를 포괄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었다. 애석하게도 관인이 관할하게 되어 남녀가 질탕하게 노닐고, 또한 날로 그 사이에서 조잡해지니, 맑은 운치가 격감되었다. …… ‘종남산은 (벼슬길에 오르는) 지름길이다.[終南捷徑]’는 산신령이 조롱을 보내기에 충분하였다.³⁴⁾

同趣 濃淡汗漫於烟雲杳靄之際 而風櫓津舶 出入有無 渺不知其所止 唱娃賈客 華筵畫壺 清歌妙舞 凌亂上下者 爛如也。…… 余謂亭之明媚爽塏 或嫌繁華濃艷之太勝 而特其居使之然也 閒曠蕭散之趣 亦未嘗少 在觀者仁智之不同耳。”

류치명은 자신이 찾은 누각 중 연광정과 부벽루 그리고 한사정에 비교적 가장 많은 지문을 할애하여 그 곳에서 보고·듣고·느꼈던 바들을 생생하게 표현한다.

먼저 ①은 연광정에 대한 이야기이다. 연광정은 關西八景의 하나로 대동강변 덕바위(德巖) 위에 있어 덕광정이라고도 불렀으며, 뛰어난 건축미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정자로 꼽힌다.³⁵⁾ ①에 보이는 “긴 성 한쪽은 굽이 굽이 물이요, 큰 들 동쪽 끝은 점점이 산이로다.”는 연광정의 시판에 있는 시구로 고려의 莊元 金黃元의 시다.³⁶⁾ 류치명은 김황원의 시구가 연광정의 승경을 더할 나위 없이 잘 표현한 것으로 평가한다. 류치명은 휘황찬란한 자태를 뽐내는 연광정의 변화한 승경에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의 감탄을 자아내기도 한다. 그러나 류치명이 생각하는 누정은 연광정의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에 있지 않았다. “정자라 함은 밝고 고우며 앞이 탁 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 변화하고 농염함이 지나치게 빼어나면 특별히 그러한 정자에 거처하는 것을 싫어한다.”에서처럼, 류치명의 누정에 대한 관점은 한가하고 소산한 정취를 자아내는 청아한 모습에 있었던 것이다.

②에서는 浮碧樓를 이야기한다. 아름다운 풍광과 더불어 활기찬 저자가 조망되는 연광정이 음주와 가무로 유흥을 돋우기에 적합한 공간이었다면 저자와 거리를 둔 곳에 위치하여 고즈넉한 분위기의 부벽루는 문인들이 회합처로 적합한 공간이었다. 특히 부벽루는 현지인과 외지인의 상이한

34) 柳致明, 『定齋先生文集續集』卷8, 雜著, 「關西遊錄」, “浮碧樓, 在練光直北數里許. 由而入者, 自大同門. 行峻壁下, 壁若倒, 江若湧. 非穿爲大路, 不可入也. 既至, 見豁欲成一小區, 其稍衍而低者, 爲永明寺. 寺後臺上樓也, 亦壘堆堞, 類深潭, 因壁爲高, 因水爲勝. 實大城之外, 而爲重城以包之. 僧徒食官廩, 衣戰服, 爲守禦助也. 江外野色, 半遮山麓, 夾江而遙. 江直射樓之左壁而橫帶, 爲內外二江. 中有凌羅島, 周迴可四五里, 平衍肥饒. 往往墊沒而有居民者, 以此. 外江遠眺靑連, 內江類臨亭泓. 三面阻山, 峻壁峭峯, 翼其左右. 上爲列堞, 凜不可躋攀. 仲車挾兩卒, 超騰而上牧丹峯. 余固不能也. 移榻近水, 坐看移晷, 輿曠畢具, 宜靜宜爽, 咫尺之間, 不知城市所在. 但練光屋角, 遙望而已. 樓以不見紛華, 不聞鼓角, 去鬧爲閒爲高. 幽閑遙覓之中, 亦自軒敞雄渾, 若幽人逸士獨保幽貞, 而自有包羅宇宙之胃襟也. 惜其爲官人所領, 蕩遊男女, 又日稠雜於其間, 殊損清致. …… 終南捷徑, 足爲山靈獻嘲也.”

35) 박래겸 저/조남권·박동욱 역, 앞의 책, 2013, pp.39-47 참조.

36) 李晚秀, 『履齋遺稿』卷12, 詩, 「練光亭聯句 楹間一聯, 始得合璧, 使金壯元有知, 知有後世子雲歟」.

문화가 교섭하는 문화공간으로서의 의의가 더욱 크다. 부벽루는 중앙과 지방이 교섭하는 역동적인 문화공간으로 인식되었다.³⁷⁾

부벽루는 류치명이 생각하는 누정에 부합되는 요소들을 거의 갖추고 있었다. “부벽루에서는 변화함을 볼 수 없고, 고각 소리도 들을 수 없으며, 시끄러움을 떠나 한가롭고, 고상하기까지 하다. 한적하고 그윽한 가운데 또한 절로 탁 트인 난간이 웅혼하여 유인·일사 같은 이들이 홀로 그윽한 정절을 보전하고 스스로 우주를 포괄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었다. 애석하게도 관인이 관할하게 되어 남nerg가 질탕하게 노닐고, 또한 날로 그 사이에서 조잡해지니, 맑은 운치가 격감되었다.”는 내용과 ②의 끝 구절에서 ‘종남산은 (벼슬길에 오르는) 지름길이다.[종남첩경]’라는 부분은 저 옛날 종남산으로 들어가 거저 은둔하며, 입신양명의 기회를 노렸던 唐나라 盧藏用을 司馬承禎이 풍자한 고사³⁸⁾를 통해 부벽루가 세속의 부귀영화와 명예욕의 속박에서 벗어난 초탈의 경지에 있는 곳임을 강조하여 자신의 누정관을 재확인시키고 있다.

연광정과 부벽루는 평양을 대표하는 명승지이다. 연광정과 부벽루의 거리는 5리도 채 되지 않는다. 따라서 두 곳에서 조망되는 경관에 큰 차이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조선후기 문인들의 기록에 따르면 두 곳의 경관을 상당히 이질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³⁹⁾ 연광정이 화려한 아름다움을 자랑한다면 부벽루는 고아한 정취를 풍기는 곳이다. 趙顯命은 연광정이 화려[佳麗]하다면 부벽루는 한적[幽夐]하다고 하였으며⁴⁰⁾, 李晚秀는 두 곳의 빼어난 경관과 그곳에서 벌어지는 유흥의 즐거움은 비슷하지만, 부벽루는 속세를 멀리한 고아하고 한적한 정취가 있다고 하였다.⁴¹⁾ 류치

37) 장유승, 「문화공간으로서의 부벽루-중앙문인과 지역문인의 교류를 중심으로-」, 『韓國漢文學研究』 53, 한국한문학회, 2014, pp.218-219.

38) 祝穆, 『古今事文類聚前集』 卷33, 「終南捷徑」, “盧藏用, 始隱山中時, 有意當世, 人目為隨御隱士, 晚乃徇權利, 務為驕縱, 素節盡矣. 司馬承禎, 嘗召至闕下, 還山, 藏用指終南山曰, ‘此中大嘉處.’ 禎徐曰, ‘以僕視之, 仕宦之捷徑耳.’ 藏用大慙.”

39) 장유승, 앞의 논문, 2014, p.216.

40) 趙顯命, 『歸鹿集』 卷18, 記 「燕超亭記」, “試以今行所經歷者言之, 練光之佳麗, 浮碧之幽夐, 百祥之確傑, 各極天下之勝, 而不可以相兼, 此千古勝地之恨也.”

41) 李晚秀, 『稷園遺稿(原集)』 卷2, 記 「浮碧樓重修記」, “夫江山雲烟之撰錦疊繡, 舟車冠蓋之星馳霧

명은 두 곳에서 보이는 경관의 차이를 雅俗의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연광정은 雅俗이 交融하는 곳인 반면 부벽루는 俗보다 雅에 치우쳐 있으니, 부벽루는 고상한 隱士와 같고, 연광정은 부귀한 자와 같은 것으로 보았다.⁴²⁾⁴³⁾

한사정은 연광정 하류 15리에 있었다. …… 한사정 아래에 이르러 남쪽의 여러 봉우리들을 바라보니, 하늘 끝에 떠있고 안개가 개이자 열은 푸른빛을 띠었다. 배를 두고 언덕으로 올라갔는데, 언덕은 긴 제방과 같았고, 흐르는 물을 막아서고 있지만 뛰어난 경치는 없었다. 북쪽으로 큰 들판을 통하였고, 강물은 내외하였다. 강 가운데는 이름 없는 섬이 있었다. 특히 크고 늙은 나무가 언덕 옆에 줄을 이루고 있어서 두 강을 서로 비추고, 정자를 두르고 있는 것이 마치 그림을 그려놓은 듯 하였으며, 강밖에는 언덕이 꼭 들어차 있었다. 북쪽 들판에는 외성이 있었는데, 대대로 기자의 옛 도읍지라 전해진다. 그 지역은 넓고 평평하여 이따금씩 백성들이 불을 피우고, 거처하기도 하였다. 산기슭을 등지고 흙더미가 그곳을 에워싸고 있었는데, 이곳을 ‘기자성’이라 하니, 모두가 돌을 뼈대로 하고 있었다. …… 이곳은 보고 듣는 것이 번거롭지 않고, 마음이 안정되며, 한가롭고 쓸쓸하기도 하며, 적막하여 알아주지도 않지만, 어찌 외물에 노념을 대표한다 이를 수 있겠는가? “흰 갈매기는 한가로운 듯하네.”라는 (황정견의) 시구는 참으로 이 정자의 이름으로 할 만 하였다.⁴⁴⁾

다음은 한사정이다. 한사정은 연광정과 15리 정도 거리에 있었다. 그다지 뛰어난 경치는 아니었지만, 한사정 주변 강 가운데 이름 없는 섬의 경관이 마치 그림을 그려놓은 듯 류치명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류치명은

集 管絃綺羅壺觴筆硯之淋漓酣暢 斯樓與練光等也 山不增高而益秀 水不增深而益清 地不增豁而益朗麗潔淨 芬華不移 縹塵不染 迴立物表 獨葆其高峻遐遠之趣 惟斯樓有之 練光不能焉。”
42) 柳致明, 『定齋先生文集續集』 卷8, 雜著, 「關西遊錄」, “雅俗交融, 則練光有之, 俗以爲遜而雅或偏宜, 則浮碧有之 …… 若浮碧, 固自有取其名者, 可與隱士爲高者類矣 練光 富貴而不淫者也, 揚名其宜也.”

43) 장유승, 앞의 논문, 2014, p.217 참조.

44) 柳致明, 『定齋先生文集續集』 卷8, 雜著, 「關西遊錄」, “閒似亭, 在練光下流十五里. …… 抵亭下, 南望數峯, 浮在天末, 晴靄淡碧. 捨舟而岸, 岸如長堤, 捍流無奇致. 北通大野, 江爲內外, 中有島無名, 而特大老樹擢岸成列, 以映帶二江, 而環繞於亭, 若畫圖然. 江外培塿纍纍也. 北之野外城, 而世傳箕子舊都也. 其地曠平, 往往人烟聚居. 負山麓, 土墩環之, 云是箕子城, 皆有石爲骨. …… 此地視聽不煩, 意思安靜, 閒曠蕭散, 寂寥而莫我知, 豈所謂遊物之表者耶? ‘白鷗閒似’之句, 真可以名是亭矣.”

“물과 하늘은 머금은 듯 보였고, 밝은 모래는 하얗게 펼쳐져 있으며, 기러기는 떼다 가라앉고, 경물의 빛깔은 서로를 시샘하는데, 이 때 물결이 차 올라 날아오를 뿐이었다.”는 표현을 통해 한사정의 한가로운 풍경을 담아낸다. 글의 마지막 구절에서는 “흰 갈매기는 한가로운 듯하네.”⁴⁵⁾라는 宋나라 黃庭堅의 詩句를 인용하여 ‘한사정’이라는 정자의 이름의 유래가 과연 지금의 펼쳐진 풍경과 전혀 낯설지 않고 너무도 딱 들어맞는 사실에 감탄하고 있다.

- ① 총론하자면 연광정은 웅장하고 화려하고, 부벽루는 심원하며, 한사정은 한적하니, 각각 장점인 바로써 명망이 높다. 고상함과 속됨이 뒤섞였다면 연광정이 그러하고, 속됨은 사양하려하고, 우아함을 몹시 좋아한다면 부벽루가 그러하며, 속세 사람은 지나가면서 거들떠도 안 보지만, 고상한 사람이 대중을 멀리하고 혼자서 간다면, 한사정이 그러하다. 그것을 요약하자면, 우열을 가리기 힘든 자리가 될 뿐이다. 그러나 한사정은 뛰어난 승경과 기묘한 경관이 없지만, 연광정과 부벽루의 사이에 끼여 그것들과 함께 이름을 나란히 하고 있다. 선비는 진실로 담박함은 있되, 장황하고 화려한 세는 없어야 하니, 공경과 재상의 반열을 초월한 것은 이 한사정이니, 어찌 사람과 같이 짝할 수 있겠는가? 부벽루 같은 것은 진실로 스스로 그 명성을 취한 것이 있으니, 은둔하는 선비와 함께 고상한 것을 할 만 한 부류일 것이다. 연광정은 부귀하되 음탕하지 않으니, 명성을 드날리기에 아마도 마땅할 것이다.⁴⁶⁾

45) 黃庭堅(撰)任淵(注), 『山谷內集詩注』卷1, 「演雅」, “桑蠶作繭自纏裹, 蛛蝥結網工遮避, 燕無居舍經始忙, 蝶為風光勾引破, 老鶴銜石宿水飲, 柳蜂趨衙供蜜課, 鵲傳吉語安得閒, 雞催晨興不敢臥, 氣陵千里蠅何礙, 枉過一生蠶何善, 蠶聞湯沸尚血食, 雀喜宮成自相賀, 晴天振羽樂吟游, 空穴祝兒成螺贏, 蛙蚌轉丸賤蘇合, 飛蛾赴燭甘死禍, 井邊蠹李蟪苦肥, 枝頭飲露蟬常餓, 天嬖伏隙錄人語, 射工含沙須景過, 訓狐啄屋真行怪, 蠅蚋報喜太多可, 鷓鴣密伺魚蝦更, 白鷺不禁塵土流, 絡緯可嘗省機織, 布穀未應勸蠶播, 五技鼯鼠笑樹拙, 百足馬蟻憐蠶跛, 老蚌台中珠是賊, 醜雞甕裏天幾大, 螳螂當輻射長臂, 熒耀宵行矜火照, 提壺猶能灌古酒, 黃口只知貪飯顆, 伯勞饒舌世不聞, 鸚鵡纒言便闕錄, 春蛙夏蟩更嘈雜, 土蚓壁蟬何碎瑣, 江南野水碧于天, 中有白鷗閒似我。”

46) 柳致明, 『定齋先生文集續集』卷8, 雜著, 「關西遊錄」, “摠而論之, 練光之壯麗, 浮碧之幽邃, 閒似之蕭散, 各以所長擅名, 而雅俗交融, 則練光有之, 俗以爲遜而雅或偏直, 則浮碧有之, 俗子過之而不顧, 雅者違衆而孤往, 則閒似有之, 要之爲伯仲行耳, 然而閒似無奇致異觀, 而介乎二勝之間, 與之齊名, 士固有淡然無張皇震耀之勢, 而軼過公相者, 斯亨也, 豈若人之儔耶? 若浮碧,

- ② 나는 관서지역을 유람하면서 반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2가지를 얻었다. 배에서는 자신이 이미 이동했는지 볼 수 없어서 옆 언덕이 모두 떠내려갔다고 한다. 사실 언덕은 제자리에 있되, 배가 떠내려 간 것일 뿐이니, 자신에게 빠져 남을 의논하기 좋아하는 자들이 이에 해당한다. 낚시는 낚시줄과 낚시 대가 비바람에 흔들려도 청정한 곳에 스스로 있으려 하니, 천하에 한가함을 말하는 자가 그곳으로 돌아간다. 낚시라는 것은 또한 절로 세상 밖 고아한 정취를 생각나게 한다. 다만, 외물에 이끌려 자신에게 돌아가려는 뜻이 생길까 두려워하니, 안을 살펴 밖을 편안히 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자신을 반성하는 데 뜻을 두었으니, 눈에 닿는 것 모두가 이리하였다. 다만 처지에 따라 성찰하여 깨달을 수 없음을 근심할 뿐이다.⁴⁷⁾

류치명은 자신의 『관서유록』에서 자신이 둘러본 누정에 대한 총괄 평가로 글을 마무리한다. ①에서는 먼저 연광정을 평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웅장하고 화려함 그리고 부귀하되 음탕하지 않는 것이 특징인 연광정, 그러나 세속의 속됨이 지나친 단점도 가지고 있음을 말하였다. 다음으로 부벽루에 대해서는 심원하고 우아함을 쫓는 부벽루가 은둔처사에 어울리는 고상함을 함께 느낄 수 있다고 평하였다. 그리고 한사정에 대해서는 연광정과 부벽루의 사이에서 비록 뛰어난 경관은 아니지만, 온갖 부귀영화를 갈망하는 세속과는 동떨어져 담박함을 홀로 즐길 수 있는 한적한 곳이라고 평가하였다. 류치명은 이러한 누정의 평가들을 통해 자신의 유자적인 가치관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는다. ②에서는 그러한 생각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배’와 ‘낚시’라는 대상의 원리를 통해 자신이 처한 처지나 현실에 따라 그 원리를 이해하고 깨달아 물욕에 휩싸이거나, 어떤 선입견이나 주관적인 환경에 의해 남을 헐뜯거나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옹고그림의 객관적이고 분명한 판단 아래 자신의 몸과 마음의 행위를 결정하

固自有取其名者，可與隱士爲高者類矣。練光，富貴而不淫者也。揚名其宜也。”

47) 柳致明, 『定齋先生文集續集』卷8, 雜著, 『關西遊錄』, “余於是觀也, 得反省之助二焉。舟者, 不見已移, 謂傍岸皆流, 其實岸固自在而流者已耳。溺於己而好議人者是也。釣者, 風綸雨竿, 淨淨地自在, 天下之言聞者歸之。釣者, 亦自以爲物外高致。但怕有引物歸己之意, 索於內而耐舌於外者, 是也。有意反己, 觸目皆是。但患不能隨處省覺耳。”

고, 그러한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생각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상 살펴보았듯 글의 후반부에서는 류치명 자신이 지금까지 유람하여 거쳐 갔던 누정에 대하여 그 곳만의 장단점을 나름의 방식대로 총론한다. 그러나 류치명은 자신이 돌아본 세계를 통해 자기반성의 시간을 더하고 관서를 유람한 것이 마냥 명승을 감상하는 데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는 점을 토로하며, 나아가 유학자로서 자신의 가치관과 사상 등의 이념정립을 이루어 내려는 실천적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바로 이러한 면면들이 『관서 유록』의 가치와 의미를 구현해 내는 요소로 작용했던 것이다.

2. 강학과 배향의 공간 書院

16세기 이후 士族들은 書院을 유력한 기반으로 삼아 지방에서 정치세력화 하였으므로 서원의 상황을 통해 정치세력화의 추이를 파악해볼 수 있다. 사족이 존재하지 않았던 평안도에서는 儒生들이 조직화·세력화할 근거가 될 곳도 흔하지 않았다.⁴⁸⁾ 그러나 17세기를 지나 18~19세기에 이르러 청나라와의 관계가 비교적 안정세로 접어들면서 평안도는 국제교역과 국내상업 등의 발달로 인하여 사회경제적 사정이 중앙으로 진출하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유생들의 문과 급제자가 괄목할 정도로 늘어났다.⁴⁹⁾ 다만, 중앙의 요직에 대한 진출은 여전히 제한 적일 수밖에 없었으며, 그 토대가 되는 서원의 활성화 또한 나란히 한계가 있었다.

- ① 하나의 작은 산기슭을 넘으면 사당 하나가 세워져 있는데, 기자의 초상화를 봉안하고, 사당과 동·서재를 갖추고 있으니, 이로부터 ‘인현서원’이었다. 서원의 호칭이 그다지 걸맞진 않았지만, 설치한 기자의 초상이 희귀한 것임을 더욱 깨달아 뜰에 나아가 정성스레 보살피니, 사람으로 하여금 숙연해지고, 아련한 것이 마치 아버이를 대하는 듯 친숙하였다. 당시 기

48) 吳洙彰, 앞의 논문, 1995, p.106.

49) 오수창, 앞의 논문, 1996, p.294 참조.

자는 초야에 묻혀 그 마음이 슬퍼할 만 했겠지만, 이 때문에 임금이 있게 되었으니, 어찌 우리나라 千古의 다행스러움이 아니겠는가? 또 하나의 그림으로 된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洪範九疇의 옛 일을 펼쳐 그린 것이었다. 기자는 무왕과 대하고, 주공과 태공은 좌우에 나란히 그려져 있는데, 아직 당시에 이미 그림 그리는 사람이 있어 예법에 맞게 그렸는지는 알 수 없었다. 후세에 와서 옛 사람을 그리고 후세 사람의 관복을 입혀놓으니, 알팍한 속임에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다. 관은 褱掩과 서로 비슷하나 조금 높이 생겼는데, 은나라의 면류관인지는 알지 못하겠다. 제복은 웃옷과 아래치마가 다르니, 옛날 복식이 아니었다.⁵⁰⁾

- ② 四學儒生 朴宗堯 등이 상소하기를, “海東의 한 구역이 大夏와 짝할 수 있는 것은 단지 箕聖이 가르침을 편 나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집집마다 祠位를 설치하고 제사를 지낸다고 하더라도 그 은혜의 만분의 일도 보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과거 萬曆 28년(1600) 평안 감사 徐洵이 趙孟頫가 그린 箕子가 武王에게 洪範에 대해 진달하는 그림을 구입하여 平壤의 仁賢書院에 소장하여 두었습니다. 그런데 天啓 6년(1626)에 예조 판서 李廷龜가 畫師를 보내어 그 辟容을 模寫해 내었는데, 미처 奉安하기 전인 다음 해에 오랑캐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菴僧이 스스로 箕聖의 후예라고 하면서 眞本을 받들고 난을 피하여 長淵의 鶴棲寺에 와서 거주하였는데, 崇禎 무신년에 중이 그 畫像을 土人 韓連希에게 부탁하였고, 한연희가 이를 받아서 보관하여 왔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속히 有司에게 명하여 廟宇를 重建하게 한 다음 崇仁殿에 봉안했던 화상을 다시 봉안하게 하소서.”하니, 비답하기를, “물러가서 학업을 연마하라.”하였다.⁵¹⁾

- ③ 삼가 살피건대, 우리 聖祖 때 한 시골 유생이 夫子의 遺像을 구매하여 가지고 書院을 세우게 해 달라고 상소하였는데, 儒罰을 시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어서 멀리 귀양 보내었다. …… 가령 직접 마주 대하여 모사

50) 柳致明, 『定齋先生文集續集』 卷8, 雜著, 「關西遊錄」, “踰一小麓, 設一祠, 奉箕子畫像, 具堂齋, 名仁賢書院. 書院之號, 殊爲未稱, 像設愈覺希闊, 而就庭奉審, 令人肅然, 僂然若可以親之也. 當時遜荒, 其心可悲, 而是以有衮衣, 豈非吾東千古之幸耶? 又有一圖軸, 畫陳洪範故事, 箕子對武王, 周公太公并在左右, 未知當時已有工畫者, 倣法之耶. 後世圖畫古人, 而爲後人冠履, 淺謬可笑. 冠與褱掩, 相似而稍高, 未知爲殷冏歟. 服則異上衣下裳, 非古矣.”

51) 『正祖實錄』 卷12, 「5年(1781 辛丑 / 淸 乾隆 46年) 7月 23日(癸亥) 1번째 기사」.

한 七分의 眞本이라 해도 터럭 하나 머리카락 하나 어그러지지 않게 되기를 바라기 어려운데, 더구나 외진 나라에 있으면서 부자와의 시간적인 거리가 수천 년이나 되고 중국과의 거리가 수만 리나 되니, 비록 진본이 있다 해도 분명히 위조품일 것임을 알 수 있다. …… 이 學儒의 상소를 보건대, 韓氏 성을 가진 중이 趙孟頫의 陳洪範圖를 옮겨 모사한 것을 가지고 사당을 세우도록 해 주고 扁額을 내려 달라고 청하였는데, 나는 반도 채 들기 전에 나도 모르게 놀랍고도 괴이하게 여겼다. 저 무식한 시골 유생이 상소하여 망녕되어 말했던 것은 그래도 황당무계한 말이라고 물리쳐 가법치 않은 법률로 처단해 버리고 말 수 있었다.⁵²⁾

류치명의 『관서유록』에는 관서지역 유림들의 강학과 배향의 공간으로 활용되었던 인현서원과 경현서원을 방문한 기록이 있다. 류치명이 방문한 서원은 바로 관서지역을 대표하는 서원이자, 평안도 최초로 건립된 仁賢書院이었다.

인현서원은 평안남도 평양시 西城里에 있던 서원으로 1564년 진사 楊德禧 등이 관찰사 鄭宗榮에게 청하여 學古堂이라는 精舍를 창건한 것을 1576년 관찰사 金繼輝가 지방 유림들과 함께 箕子의 영정을 모시고, 洪範이라는 명칭의 서원으로 발전시켰다.⁵³⁾ 이후 광해군 원년인 1608년에 '仁賢'으로 賜額되어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하기도 하였으나, 1871년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손되었던 곳이다.⁵⁴⁾

인현서원의 특이사항이라면 류치명이 인용문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여느 서원과는 달리 箕子를 配享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조선 性理學의 학통을 계승한 주요 先賢을 祭享하던 사림파의 전형적인 서원과는 차이가 있다.⁵⁵⁾ 류치명이 직접 둘러본 인현서원은 기자의 영정을 모시는 사당과

52) 正祖, 『弘齋全書』 卷31, 教2, 「四學疏儒施罰教」, “謹稽我聖祖時, 有一鄉講儒得夫子遺像, 疏請建院者, 不惟不施儒罰, 從以遠配. …… 大抵畫眞而逼眞爲難, 借令對面摹寫, 七分之本, 難望其一毫一髮之不爽, 況在偏邦? 去夫子爲幾千年, 距中土爲幾萬里, 則縱曰有眞本, 決知爲贗作. …… 觀此學儒上疏, 請以韓姓僧, 移摹趙孟頫陳洪範圖, 建祠直額, 子聽之未半, 不覺駭異. 彼無識鄉儒之陳疏妄言, 尙且斥之以無稽之說, 勸之以不輕之律.”

53) 吳洙彰, 앞의 논문, 1995, p.106.

54) 박래겸 저/조남권·박동욱 역, 앞의 책, 2013, p.158 각주 110) 참조.

동서재를 갖추어 기본적인 서원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인현서원에서 류치명은 기자의 초상과 홍범구주의 내용과 인물들이 그려진 두루마리 하나를 발견한다. 바로 洪範圖였다. 동방의 문명을 열었고, 소중화의 문명국이라는 의식을 일깨워준 기자의 초상 앞에 류치명은 숙연하기까지 하다. 그리고 두루마리에선 기자와 무왕 그리고 주공과 강태공의 모습이 보인다. 그러나 그림이 조잡하고, 해당 인물들의 복색이 당시 것과는 맞지 않은 것을 보고는 의아해 하고, 이내 진본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 현재 인현서원의 홍범도가 진본이 아니라는 류치명의 주장은 ②, ③에 나타난 『정조실록』의 자료를 통해서도 그 진위 여부가 논란이 되어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③에서는 모두 18세기 조선후기 평안도 유생에 의해 기자를 숭상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중앙정계에 평안도 유생들의 존재를 알리고, 중앙 진출의 기회 모색하려는 움직임으로도 해석된다. 이는 예전에 비해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로 접어들면서 중앙정계에서 소외되었던 관서지역 유림들이 청요직은 아니었지만, 중앙 진출과 정계 활동이 비교적 활발했던 사실을 뒷받침 해준다. 류치명은 또한 景賢書院도 방문한다. 그러나 류치명이 방문한 경현서원은 그 관리가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경현서원은 교궁의 왼쪽에 있었다. 회재 이문언[李彦彦] 선생을 尊祀하였기에 나아가 배알하고, 유적을 물으니, 남아있는 것이 없다하였으나, 남아빠진 투호와 철로 된 燈은 온전히 있었다. 또 圓衫은 고을 사람들이 혼례를 치를 때 사용했던 것으로 보였으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있었다. 반송 한 그루에서는 일찍이 학문에 전념하다 놀기도 쉬기도 하였는데, 겨우 수십 년 전에 썩어 문드러졌다고 한다. 왼쪽에 있는 기와집 여러 채는 선생께서 기거 하셨던 곳이었지만, 또한 사람들이 되팔아버렸다. 江鄉에서는 선생에 대해 사랑과 공경을 다하고, 향교에 힘써 의식과 제도는 간결하고 질박하였으니, 풍속이 진실로 그러하였다.⁵⁶⁾

55) 吳洙彰, 앞의 논문, 1995, p.107.

56) 柳致明, 『定齋先生文集續集』卷8, 雜著, 「關西遊錄」, “景賢書院 在校宮之左. 尊祀晦齋李文元先生. 就而拜謁, 問遺蹟, 無在者, 有投壺破缺. 鐵燈尙完. 又有圓衫, 示州人爲婚禮之用, 而毀不

경현서원은 1609년 지방유림의 공의로 江界에서 유배 생활을 했던 晦齋 李彥迪(1491~1553)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여 1614년에 '景賢'이라고 사액된 서원이다.⁵⁷⁾ 경현서원은 관서지역 유림들의 선현배향과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여왔다. 그러나 류치명이 본 경현서원의 장내는 회재선생을 모시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었다. 주변에 있는 건물이나 여러 물건들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것들도 많았으며, 서원 내 건물에 대한 매매행위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관서지역 유림의 강학과 배향 활동이 그다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오래 전에 건립되고 사액까지 받은 서원들마저 폐허가 되거나 잊혀져 있었다는 점에서 19세기 당시에 관서지역에서는 서원을 유지할 만한 유림 세력이 성립되거나 조직화되어 있지 못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겠다.⁵⁸⁾

인현서원과 경현서원의 단적인 예만으로 확정지을 순 없지만, 류치명의 글을 통해보았을 때 평안도는 19세기에 여전히 서원활동이 활성화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평안도 유림의 지지기반과 그 활동력이 미미했음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사실 19세기에 평안도 유생들의 중앙정계의 진출은 이전에 비해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오긴 했지만, 평안도에 대한 중앙정계의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순 없었던 것이 당시 관서지역 유림이 처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可認 盤松一株，爲所嘗遊息，而腐壞才數十年前。左瓦屋數區，爲先生之居，而亦爲人轉賣。江鄉之致愛敬，俾鄉校而儀制簡樸，俗固然矣。”

57) 吳洙彰, 앞의 논문, 1995, p.107.

58) 吳洙彰, 위의 논문, 1995, p.107.

IV. 『관서유록』의 가치와 의의 - 맺음말을 대신하여

한문학 연구에서 '지역'이 연구 범주의 하나로 자리매김한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민족 담론이 지배한 7, 80년대 한문학 연구에서 지역 문학의 위상은 결코 높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거대 담론이 퇴조하면서 한문학 연구의 방향이 다각화되고,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지역 문화에 대한 관심이 再考되면서 지역 문학 연구는 점차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⁵⁹⁾

본고에서 논한 관서지역 한문학 연구의 의의는 단순한 지역문학 연구에 그치지 않는다. 관서지역은 공간적으로 중앙과 지방의 갈등이 극명하게 드러났던 곳이며, 시간적으로 북한지역의 전근대와 근대가 만나는 접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관서지역 한문학 연구는 문학사의 외연을 넓히고 근대 문학과 연관성을 탐색한다는 의의가 있으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 교류의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⁶⁰⁾

관서지역의 풍속, 지리, 역사를 노래한 몇몇 작품들을 간략히 살펴보면 먼저, 申光洙의 『關西樂府』 108장이 있다. 이 시는 평양감사로 부임하는 체제공을 위해 지은 것으로 관서지방의 인문지리지인 關西志라 할 수 있다. 柳得恭, 李德懋, 朴齊家 등은 평양 기생의 공동묘지인 嫻娥洞을 읊은 시를 남겼다. 曹好益은 松壤 곧 강동에서 귀양살이하던 1585년 음력 4월 18일부터 5월 4일까지 16일간 평안도 영변 남쪽에 있는 묘향산에 다녀와서 「遊妙香山錄」을 지었다. 박제가 또한 묘향산을 유람하고 유산록을 짓기도 하였다.⁶¹⁾

이 밖에도 여러 작품들이 있지만, 안동 전주류씨 수곡과 가문처럼 집안 대대로 북방지역에 대해 기술한 作品類는 그 실례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 자체만 놓고 보아도 전주류씨 집안의 북방지역 관련 작품의 일차적인 가치와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겠다. 덧붙여 일전의 연구에서 밝혔던

59) 張裕昇, 앞의 논문, 2011, p.74.

60) 張裕昇, 위의 논문, 2011, p.73 참조.

61) 심경호, 앞의 논문, 2011, pp.23-26 참조.

류지와 류승현의 「북도풍속기이」와 「북도풍토대략」이 관북지역 백성들의 생활 전반을 주로 다루었다면,⁶²⁾ 류치명의 『관서유록』은 관서지역 내 누정과 명승지를 유람하고 그에 대한 感誦을 기록한 일차적인 유록의 성격과 평안도 지역에 대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그 정황 관계를 살펴 그에 대한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등의 현실인식도 반영하고 있다.

『관서유록』은 역사 기술을 통해 그 사료적 가치성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이는 역사와 문학이 결합된 모습으로 사실감 있게 드러난다. 류치명은 묘향산의 유래, 동방에 문명을 전파한 기자, 황성, 송나라 휘종과 흠종, 그리고 오랑캐의 오국성 등 그 옛날 역사적 사실 묘사에서 북방지역의 역사인식과 소중화 의식이라는 조선 유학자의 사상을 가감 없이 문학적으로 형상화하였다. 또한 관서지역의 대표 누정이나 강학공간을 소개하며, 그에 대한 소회와 감정을 진솔하고 담담한 어조로 표현해 내기도 했다. 류치명의 『관서유록』은 이 같은 점에서 단순한 유람에 대한 기술이 아닌 목민관이자 유학자로서 관서지역을 제대로 알고, 자기성찰의 시간도 갖는 등 여러 의미와 의도가 담겨져 있다.

강변에 어지러이 널려있는 돌 가운데 돌의 형상이 물거품이 모여 결합한 듯 전체가 모두 벌집처럼 구멍이 나있다. 그 돌은 쇠와 철을 깎는데 잘 쓰이고, 아낙네는 바늘을 가는데 사용한다. …… 지붕 같이 큰 것은 그 유래가 백두산에서부터 왔다고 한다.⁶³⁾

한편 류치명의 현실인식은 민생의 소소한 일상의 세밀한 곳까지 염두해 두는 모습을 보인다. 위 글에서 류치명의 시선이 머문 곳은 강변에 어지러이 널려있는 돌에 멈춘다. 이 돌은 여느 돌과는 달리 그 생김새가 특이한 나머지 형상이 ‘泡漚翕聚’, ‘蜂房毛孔’라는 구체적인 단어 묘사로 물거

62) 남윤덕, 앞의 논문, 2014, pp.367-394 참조.

63) 柳致明, 『定齋先生文集續集』卷8, 雜著, 「關西遊錄」, “江邊亂石中, 有石狀類泡漚翕聚, 全體皆蜂房毛孔. 其用善削金鐵, 婦人用以磨鍼. …… 大者如屋, 其來自白頭山云.”

폼 모양이나, 별집처럼 구멍이 숭숭 나 있는 독특한 돌로 규정한다. 류치명의 시선을 사로잡은 그 돌은 다름 아닌, 화산활동에 의해 용암이 지표면에서 굳어져 만들어진 현무암을 지칭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류치명의 관심은 현무암의 쓰임에 있었다. 그 이유는 백성들의 실제 삶과 직접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류치명은 관서지역 백성들이 일상생활에서 현무암을 금속계통의 물건을 다듬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일례는 류치명의 민생에 대한 현실의식을 반영함과 동시에 관서지역 백성들의 생활환경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결론하자면 현직 관료문인으로서 서북지역을 다스렸던 류지와 류승현 그리고 류치명 집안의 가문 대대로 이어지는 서북지역에 대한 관심과 관련 작품들이 차지하는 의미는 유학자의 역사인식과 문학적 형상화를 통한 한문학의 장르적 측면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겠다. 앞으로 북방지역에 대한 후속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본 논의의 맺음으로 대신한다.

〈參考 文獻〉

■ 資料

『承政院日記』.

『正祖實錄』.

金興洛, 『西山先生文集』.

吳之振, 『宋詩鈔』.

彭大翼, 『山堂肆考』.

李晚秀, 『履園遺稿』.

祝穆, 『古今事文類聚前集』.

趙顯命, 『歸鹿集』.

黃庭堅(撰)/任淵(注), 『山谷內集詩注』.

正祖, 『弘齋全書』.

柳致明, 『定齋先生文集』, 韓國文集叢刊 297-298, 民族文化推進會, 2002.

韓國學文獻研究所, 『寧邊志』, 『韓國地理志叢書 邑誌(平安道篇)』, 亞細亞文化社, 1986.

■ 연구저술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안동 무실 마을—문헌의 향기로 남다』, 예문서원, 2008.
박래겸 저/조남권·박동욱 역, 『西繡日記 126일간의 평안도 암행어사 기록』, 푸른역사, 2013.

권내현, 「朝鮮後期 平安道 財政運營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柳榮洙, 「定齋 柳致明 經學 研究」,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오수창, 「朝鮮後期 平安道民에 대한 人事政策과 道民의 政治的 動向」,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張裕昇, 「朝鮮後期 西北地域 文人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김민주, 「조선시대 관아 누각의 건축 특성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林成洙, 「18세기 평안도 鎭堡재정의 구조와 운영—『關西戶斂給代癸丑改釐正節目』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정영준, 「平安道 農民戰爭의 參與層 研究」,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연구논문

- 강석화, 「조선후기 평안도지역 압록강변의 방어체계」, 『한국문화』 34,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2004.
- 고석규, 「18세기말 19세기초 평안도지역 鄕權의 추이」, 『한국문화』 11,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0.
- 권내현, 「17세기 후반-18세기 전반 平安道の 對淸使行 지원」, 『朝鮮時代史學報』 25, 조선시대사학회, 2003.
- 권내현, 「18세기 후반-19세기 전반 平安道の 對淸使行 지원과 貿易收稅」, 『사충』 56, 역사학연구회, 2003.
- 권내현, 「번암 채제공의 평안도 인식」, 『한국인물사연구』 5, 한국인물사연구소, 2006.
- 권정은, 「〈百祥樓別曲〉의 누정문학적 정체성」, 『語文學』 93, 한국어문학회, 2006.
- 金明淑, 「『西繡日記』를 통해 본 19세기 평안도 지방의 사회상」, 『동아시아 문화연구』 35, 漢陽大學校 韓國學研究所, 2001.
- 남윤덕, 「17-18세기 安東 全州柳氏 官人の 작품 속에 나타난 關北地域 형상화와 그 의미」, 『人文研究』 70,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4.
- 노영구, 「조선후기 평안도지역 內地 거점방어체계」, 『韓國文化』 34,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2004.
- 류영수, 「正齋 柳致明 研究(1)」, 『東方漢文學』 44, 동방한문학회, 2010.
- 朴晶愛, 「朝鮮 後期 關西名勝圖 연구」, 『美術史學研究』 258, 韓國美術史學會, 2008.
- 송혜진, 「조선후기 관서지방의 공연 시공간과 향유에 관한 연구」, 『공연문화연구』 22, 한국공연문화학회, 2011.
- 심경호, 「관서·관북 지역의 인문지리학적 의의와 문화」, 『한국고전연구』 24, 한국고전연구학회, 2011.
- 吳洙彰, 「17, 18세기 平安道 儒生層의 정치적 성격」, 『韓國文化』 16,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5.
- 오수창, 「18세기 영조·정조의 평안도에 대한 정책」, 『역사와 현실』 17, 한국역사연구회, 1995.
- 오수창, 「조선후기 평안도 지역차별의 극복 방향」, 『역사비평』 33, 역사문제연구소, 1996.
- 吳洙彰, 「18세기 평안도 武士層의 중앙 진출과 그 한계」, 『역사문화연구』 12,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00.

- 吳洙彰, 「19세기 초 평안도 사회문제에 대한 지방민과 중앙관리의 인식과 정책」, 『韓國文化』 36,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5.
- 오수창, 「조선시대 평안도 출신 文臣에 대한 차별과 通淸」, 『한국문화연구』 15,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08.
- 張裕昇, 「조선 후기 서북 지역 문인 집단의 성격-평안도와 함경도의 지역 정체성 차이를 중심으로-」, 『진단학보』 101, 진단학회, 2006.
- 張裕昇, 「조선 후기 변경 지역 인식의 변모양상」, 『한문학보』 20, 우리한문학회, 2009.
- 張裕昇, 「서북 지역 한문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고전연구』 24, 한국고전연구학회, 2011.
- 장유승, 「문화공간으로서의 부벽루-중앙문인과 지역문인의 교류를 중심으로-」, 『韓國漢文學研究』 53, 한국한문학회, 2014.
- 鄭演植, 「17·18세기 평안도 良役制의 변천」, 『韓國文化』 27,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01.
- 최재남, 「관서·관북 지역의 시가 향유 양상」, 『韓國古典研究』 24, 한국고전연구학회, 2011.
- 최진욱, 「조선시대 평안도의 생원 진사시 합격자 실태」, 『朝鮮時代史學報』 36, 朝鮮時代史學會, 2006.
- 탁원정, 「고소설 속 관서·관북 지역의 형상화와 그 의미」, 『한국고전연구』 24, 한국고전연구학회, 2011.
- 河明垞, 「18世紀 前半 平安道 儒生의 地域認識과 關西辨籍疏 事件」, 『한국사연구』 167, 한국사연구회, 2014.

Abstract

Regional Imagery Patterns and Its Meaning in Jungjae, Ryu Chi-Myeong's 『Kwanseo Yurok』 Official Records

Nam, Yoon-deok*

Ryu Chi-myeong's 『Kwanseo Yurok』 examines the situation and relationship in various aspects such as social,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aspects of Pyeongan-do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imary Yurok, which records the impressions and excitement of the ridges and scenic spots in the Kansai region. It also reflects reality perception, such as directly or indirectly. 『Gwanseo Yurok』 shows the historical value through historical technology. This is revealed realistically through the combination of history and literature. Ryu Chi-myeong is the ideological figure of the Joseon Confucian, who is the origin of Myohyangsan, Gija who spread civilization in the East, Hwangseong, Song Dynasty, Huijong and Heumjong, and Orangka's Ojukseong. Revealed without adjustment. In addition, introduced representative gangs and Kanghak spaces in the Kwanseo region, and expressed his regrets and feelings in a sincere and calm tone. Ryu Chi-myung's 『Kwanseo Yurok』 can be recognized as a literary value in various meanings and intentions, such as knowing the government office area properly and taking time for self-reflection as a wooden building, not a description of a simple go sightseeing.

【Key words】 Kwanseo Yurok, Gija, Ojukseong, Towers and Pavilions, Seowon

투고일 : 5월 25일, 심사완료일 : 6월 12일, 게재확정일 : 6월 16일

* Instructor, Department of Korean Literature in Classical Chinese,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Korea / skadbsejr95@hanmail.net

